

예비된 훈련의 장 - Advanced Cultural Studies

안녕하세요. 저는 Biblical Theology Seminary(BTS) 에 재학 중인 박신형이라고 합니다. 2014 년 12 월 현재 MDiv program 2 년차 학생입니다. 이 글은 Advanced Cultural Studies(ACS) 과정을 염두해두신 분이시거나 저희 BTS 학교에 새로이 들어오시려는 한국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저로서 먼저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플점수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학생들이 본과 수업을 가기 전 꼭 들어보아야 될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관계를 만드셨듯이 저는 언어를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우며 터득하는 동시에 아이의 대인관계가 깊고 넓어지며 동시에 자기 성격을 결정짓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언어는 참으로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언어는 단순히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영어권, 스페인어권, 중국어권을 비롯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며 그들의 언어를 들을 때마다 언어 속에 그 나라의 문화가 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실용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영어에도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곳 미국에서 쉽게 간단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제 생각의 요지를 말해야 하는 영어권적 사고를 통해 언어와 문화 사이에 서로 양방향의 영향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런 언어의 기본적 구조아래 미국의 역사와 철학을 비롯 교육의 시스템이 수 백 년 동안 쌓여왔다면 영어를 비롯 미국의 문화가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할 수 있겠다는 자연스러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어권을 배경으로 문화를 논하거나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미국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의 관점이 한국의 것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가진 신학적 생각과 사상을 논하려면 분명히 다른 지식의 체계가 필요한 것처럼 거리만큼이나 멀고 확연히 다른 미국의 신학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신학의 뿌리가 되는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 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배움의 그루터기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려 할 때 확연히 다른 한국과 미국의 생각의 차이를 배우는 겸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미국 학문의 자양분을 흠뻑 흡수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접붙임 한 뒤 한동안 기존 가지와 새 가지를 따로 엮어서 서로 온전히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ACS 과정은 미국의 문화, 역사, 철학, 글쓰기 노하우의 광범위한 주제부터 신학 용어, 분과 논문 작성법 등 실질적으로 짧은 학기 안에 영어적 사고를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 모습을 계속 발전시키며 학생들이 본과 수업을 넘어 배움의 그루터기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BTS의 또 하나의 핵심 과정으로 자리 내렸습니다.

제게 ACS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실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한 단어, 한 문장의 개념들이 제 생각의 흐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때로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흠뻑 진리를 흡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 수업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했고 반대로 새로운 진리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한번에 날려주는 그런 시원함도 경험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반드시 결과물을 발표해야 하는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고 많은 숙제로 제 자신을 인내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가 되기도 했고 제가 가진 모든 지성을 총동원해 이유를 밝히고 싶은 그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ACS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 확신 중 하나는 교수님들께서 수업의 몇 배가 넘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이 프로그램을 영어의 향상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과정을 들으시면 당연히 아시게 됩니다. ACS 과정은 영어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어권 문화의 사고를 익히며 몸에 베이게 하는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교수님들께서는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려는 목적보다 자신들의 믿음과 평생 동안 갈고 닦은 학문의 진수를 가르치시려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내 공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페이퍼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본과의 각 교수님마다 다른 강의 스타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본과 수업을 가기 전 내가 미비하게 알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부분인지 등 ACS 강의 시간마다 자신이 미국신학교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ACS 과정은 또 하나의 연단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고 올라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신학교 교육을 본인이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가을 학기는 참으로 미국 학문의 깊이의 차이를 새삼 느끼며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수업에서 미국 친구들의 숙제의 첫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들이 얼마만큼 저와 다르게 사고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들의 사고를 모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사고를 하는지 그 연유를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다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좌절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도 ACS 과정을 통해서 습득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첫 디딤돌이 ACS 과정이라는 것에 참으로 저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넘지 못했을 과정들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학기도 ACS 과정 중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을 본과 수업에서 때마다 적용하며 공부했습니다. ACS 과정은 미국 본과 수업에 관한 실질적 도움을 넘어 제가 배움에 관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며 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의 길을 다시 한 번 다 잡아준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주저함 없이 ACS 과정에 문을 두드리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